

2019 년 ASEAN+3 지역 경제전망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AREO) 2019

주요 메시지

ASEAN+3 지역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1. **The ASEAN+3 지역은 내수가 계속 뒷받침 되고 있는 가운데 복원력(resilience)을 유지함.** ASEAN+3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5.1%, 2020 년 5.0%로 다소 둔화(moderate slightly)될 것으로 전망. 기술·설비투자 사이클이 둔화세(cyclical slowdown)를 보이고 미중간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성장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단기적으로 ASEAN+3 지역은 주로 대외 리스크에 노출.** AMRO 의 ‘글로벌 리스크 지도 (Global Risk Map)’에 따르면,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무역 긴장고조 가능성이며, 이는 ‘발생확률 중간 - 영향력 높음 (medium likelihood-high impact)’으로 분류됨. 이같은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이 더 가파른 둔화세를 보일 수 있음. 만약 기술·설비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경우 더 가파른 하강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음. 또한 ASEAN+3 지역은 기대심리의 급변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변동성 쇼크에 노출될 수 있음.
3. **ASEAN+3 지역은 대외 수요 부진에 따른 역풍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포지셔닝 확보.** 단기 리스크에 대응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역내 정책 입안자들은 대외건전성과 금융취약성은 물론 각국별 실물경기 및 신용 사이클 상의 국면에 따라 최적의 정책조합을 시행해야함. AMRO 의 분석에 따르면, 역내 회원국 대부분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및 재정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회원국 대부분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산출갭(output gap)이 거의 제로인 추세 성장률(trend growth)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은 정책목표 범위 이내 또는 장기 추세 수준에 머무는 등 실물경기 사이클상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역내 신용 사이클은 대체로 회복 내지 둔화 국면에 있으며 신용 증가율은 추세 수준에 근접.
4. **현재의 정책기조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역내 회원국들은 성장세를 지원하면서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조합(policy mix)를 재조정(recalibration)할 준비를 갖춰야.** 적절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 내지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의 지속을 비롯, 구조개혁(structural adjustments)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목표가 뚜렷한(targeted) 재정정책과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 등이 이에 포함. 한편 금융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ies)이 누적되지 않도록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함.

ASEAN+3 지역의 경제전망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장기적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며, 이는 중산층의 부상, 빠른 도시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견조한 역내 소비 및 교역 증가 등에 주로 힘입은 것임. 한편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y) 강화, 연결성 구축,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 등 장기적 정책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함.

테마연구: 신경제를 위한 역량 및 연결성 구축

5. ASEAN+3 지역은 ‘수출 지향적 제조업 전략(manufacturing for export)’을 중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번영을 구가해 왔으나, 신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달성하기위해 기술, 통합 및 다자주의를 적극 수용할 필요. 역내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역량 구축 및 국경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6. 역내 역량 및 연결성 강화가 구체화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주요 동인이 작용할 전망. 1) 4차 산업혁명, 더 넓게는 신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부상 중인 새로운 수요; 2) 중산층이 늘어나고 점점 부유해지는 등 성숙단계에 들어선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그리고 3) 역내 수요 확대와 무역·기술 보호주의 역풍 간의 긴장 관계 등.
7. 이런 배경 속에서, 역내 개도국들은 성장에 대한 3가지 주요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음 - 즉 펀딩갭, 외환갭, 그리고 팩터갭이 문제. 펀딩갭(funding gap)이란 국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공공 인프라 포함)과 국내 저축으로 융통 가능한 자금 간의 차이를 의미. 외환갭(foreign exchange gap)은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많이 축적함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파이낸싱 제약. 팩터갭(factors gap)은 비금융적 제약으로서 인적자본이나 전문성, 기술 역량 및 지배구조 체계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입요소 갭을 의미.
8. 이같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ASEAN+3** 회원국들은 역내 저축 및 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함. 아울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CMIM)을 비롯 역내 금융안정망을 강화해야 하며; **ASEAN+3** 지역의 기술적 역량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을 배가함과 동시에; 성장과 지배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필요.

부록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AMRO, 2019–2020)

실질 GDP 성장률

(전년비%)

	2018	2019 p/	2020 p/
ASEAN+3 Region	5.3	5.1	5.0
Brunei Darussalam	0.1	2.1	2.0
Cambodia	7.2	7.1	7.0
China	6.6	6.3	6.2
Hong Kong	3.0	2.7	2.7
Indonesia	5.2	5.1	5.1
Japan (FY)	0.6	0.6	0.5
Korea	2.7	2.6	2.6
Lao PDR	6.5	6.6	6.9
Malaysia	4.7	4.6	4.7
Myanmar (FY)	7.3	7.3	7.4
The Philippines	6.2	6.4	6.6
Singapore	3.2	2.5	2.6
Thailand	4.1	3.8	3.7
Vietnam	7.1	6.6	6.7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Headline Inflation)

(전년비 %)

	2018	2019 p/	2020 p/
2.0	2.1	1.9	
0.1	0.4	0.5	
2.5	2.8	3.0	
2.1	2.2	1.8	
2.4	2.5	2.3	
3.1	3.5	3.5	
0.8	0.8	0.7	
1.5	1.0	1.4	
2.0	2.2	2.5	
1.0	1.6	2.2	
5.0	4.5	4.5	
5.2	3.0	3.0	
0.4	1.1	1.5	
1.1	1.0	1.0	
3.5	3.8	3.7	

출처: 역대 정부 부처 및 AMRO 스태프의 추정치.

참조: 일본의 경우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수치는 2019, 2020, 2021 3월 회계연도말 기준임. 미얀마의 경우 2018 년이후 실질 GDP 성장률 수치는 10 월 회계연도초 기준 자료임. 2018 년도 자료가 아직 가용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AMRO 의 추정치로 기술.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은 연말 기준 수치/

Disclaimer: 본 한국어 자료는 영어 원문 자료의 번역본으로서 (스캔 후 다운로드 가능). 번역본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국문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함.

